

# 우악은연 사을막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주자단 결의 (2018. 9. 1.~2.)



#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환경연합을 자랑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환경문제현장에는 언제나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4대강 현장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려는 설악산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기업에 가슴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질의서에, 핵산업계에 맞서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장에, 생명파괴를 막고 생태민주주의를 그리는 현장에는 언제나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 기업을 대응할 때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운동연합... 그 이름 뒤에 바로 “회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후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회원확대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모금전문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후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청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연합을 지탱해주시는 회원님!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위원님! 환경연합이 자랑스럽나요? 그렇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나누어 주세요. “환경연합을 자랑해주세요.”

**릴레이 주자단의 지인과 친구들에게 환경연합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어떻게?** 환경연합에 2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주세요~

**방법 1** 지인에게 가입권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힘을 보태주세요. ※ 온라인 가입(<https://mokpo.kfem.or.kr/support>)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법 2** 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회원소통 핸드폰으로(010-8243-3169)로 환경연합을 자랑하고 싶은 지인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 ●● 흑산 공항 심의 중단사태, 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지난 10월 2일 환경부는 흑산 공항 관련 사업자(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자료 재보완 제출 공문을 사유로 국립공  
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한다고 '문자'로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혔  
는데, 이를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주

## 1. 토건세력 신적폐로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밝혔다. 또한 2017년 환경부는 '국  
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 하겠다는 비전을 선  
포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환경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나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행정부 내 숨어있  
던 토건 적폐세력은 초지일관 흑산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태도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  
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폭력을 수반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정부위원들은 일방적인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토건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흑산 공항과 그린벨트 해제, 설악산 관통 고속철도 등의 사안 사안마다 무조건 공사  
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 2. 환경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2017년 9월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환골탈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입장이 정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 차관은 회의진행의 책임을  
방기하고 파행을 주도하였다. 당연직 정부위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토생태축의 마지막 보고인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어려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에 있어 환경부가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3. 권위주의적 행정은 적폐와 같은 의미이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의 부결을 우려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셀프 철회, 회의 속행 중단을 통한 무기한적인 보완 절차를 용인하고, 심의 안건의 가결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진  
행할 예정인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버넌스 관계는 흑산 공항 사태와 같  
은 권위주의적 행정력을 발휘하는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국정을 함께 모색하는 관계라 인식한다면 지금의 막무가내 공항건설추진  
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연 흑산도에 공항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국립공원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부정하는 흑산도 공항건설 강행은 중단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속행하여 안건을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2일  
한국환경회의

#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글 / 강동호 (도야동물병원장)



수의학을 공부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동물이 아파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간혹 '아이들 키우기 참 어려우시죠?!' 라는 말을 건네곤 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가짐으로 반려동물을 대하고 키워야 한다는 의미를 완곡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 이제 천만 시대라고 말합니다. 반려인이 천만이라고 말하고 많은 분들이 부모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때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 배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을 수 있어

요즘 펫티켓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펫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입니다. 동물을 싫어하던 좋아하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겨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필요성 속에서 나오는 단어일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는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아이들은 한없이 귀엽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방어벽을 풀고 바라보기 쉽습니다. 주변인에게 식당이나 찻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무방비로 뛰어다니도록 방치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우리 고양이와 강아지는 순해서 안 물어요'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키우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 하실겁니다. 이런 관리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하곤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드렸듯이 부모의 마음이란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반려동물 키우는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 동물을 감성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 관점에서 보면 반려동물은 참 정직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짖어대고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칭얼대고 출근하고 돌아온 주인을 보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백지상태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듯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곤 합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그리고 행동교정이라는 단어로만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고 합니다. 많은 반려인들은 나의 가족으로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함에도 우리는 자신의 논리와 생각에만 맞추어 동물의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대하려고만 합니다. 감성으로만 반려동물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바라봐야할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 특유의 습성과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성에만 치우쳐서 하나의 단면만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매년 수십만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 마치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거나 새롭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픈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을 보면 반려(伴侶)란 짝이 되는 동무라고 나옵니다.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가짐을 갖고 주변인에 대한 배려의 관점을 견지하는 진정한 반려인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글 / 장이진 (목포동초등학교 4학년·어린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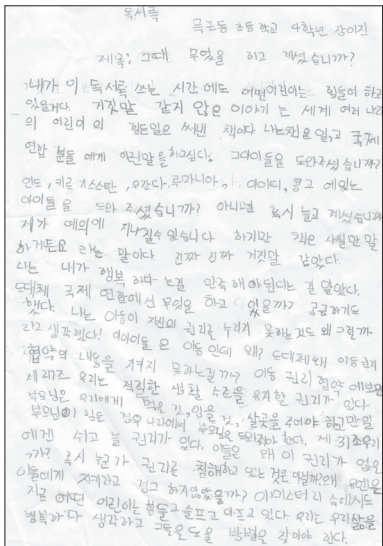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 독서록을 쓰는 시간에도 어떤 어린이는 힘들어하고 있을거다. 거짓말 같지 않은 이야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의 힘든 일을 써낸 책이다. 나는 책을 읽고 국제연합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 아이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인도, 키르기스스탄, 우간다, 루마니아, 아이티, 콩고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놓고 계셨습니까?

제가 예의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사실만 말하거든요.

진짜 진짜 거짓말 같았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걸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 도대체 국제 연합에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나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왜 그럴까? 라고 생각 했다.

이 아이들은 아동인데 왜? 도대체 왜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아동 권리협약에 보면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힘든 경우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한다. 제31조 우리에게 쉼과 놀 권리가 있다. 이들은 왜 이 권리가 없을까? 혹시 누군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유엔은 이들에게 지키라고 경고하지 않았을까? 이 미스터리 속에서도 지금 어떤 어린이는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행복하가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목포와 목포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들이었다.



##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지음 | 강경수그림 | 시공주니어 | 2011년 02월 20일 출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그림책입니다. 상황과 폭력, 그리고 비난을 함축하여 상징적으로 그려낸 아이들의 일러스트와 조화로운 구성이 시적 특징이 더해져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짚은 글과 간결한 그림으로 전해,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재생지에 거친 드로잉과 콜라주로 표현한 그림은 이러한 여백의 느낌과 소박하고 거친 느낌을 살리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그림책의 내용을 더욱 살려주는 바탕이 되고 있지요.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8월

- 03일(금) 6.15통일열차 실무단 모임
- 04일(토) 석면해체 보양상태 점검(전국체육고 \_본관)
- 07일(화) 석면해체 잔재물 조사(전남체육고, 목포미항초 유치원)
- 08일(수) 녹색연구회30주년축하연/자원순환연대빈용기조사
- 11일(토)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석(서울 상암경기장)
- 13일(월) 완도 고금면 대형돈사 반대집회 연대 발언(완도군청)
- 15일(수) 녹색연구회30주년 기념 답사
- 17일(금) 제113호 소식지 / 함께사는 길 발송
- 18일(토) 전국사무처장단 회의 참석(경주)
- 20일(월) 세월호 책자 발간 회의 참석 / 6.13지방선거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 회의(YMCA)
- 22일(수) 제15회 에너지의 날 부스 운영(산정녹지공원)  
 흑산공항 관련 MBC 일요포커스 방송토론 참여(최송춘 의장)
- 28일(화) 광주일보 NGO칼럼(흑산공항 관련 기고문 게재)
- 30일(목) 제44회 목요대화마당(흑산도 주민에게 듣는 “내가 흑산공항을 반대하는 이유”)

·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석(서울 상암경기장)



· 완도고금면 스마트팜 집회참석(완도군청)



· 녹색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답사



· 목포MBC 일요포커스 '흑산공항' 방송토론



# 9월

- 01일(토)~02일(일) 전국임시대의원대회(안동-한국국학진흥원인문수련원)
- 03일(월) 세월호 팽목항 4.16기념공간 마련 촉구 기자회견(전남도청)
- 04일(화) 무분별한 대형토사 반대 연대 활동(진도군청)  
전남도교육청 교육감 면담, 혁신기획단 간담회/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단 회의
- 06일(목) 고흥 · 보성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참석
- 07일(금) 흑산공항 토론회 참석(정부종합청사)
- 10일(월) 제4회 환경실천수기공모 공문 발송
- 11일(화) LMO목화 조사(영암, 목포) / 6.15집행위원회(OZ)
- 17일(월) 민선7기 정책실현을 위한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 회의(YMCA)
- 18일(화) 흑산공항 건설 반대 성명서 발표
- 19일(수) 흑산공항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참석  
국립공원심사위원회 흑산공항 부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사무국장)
- 21일(금) 광주MBC라디오 인터뷰(흑산공항 관련)  
목포MBC 일요포커스 토론회 녹화(23일 방영) - 흑산공항건설의 불필요성
- 27일(목) 집행위 간담회

· 전국임시대의원대회(안동-한국국학진흥원인문수련원)



· 세월호 팽목항 4.16기념공간 마련 촉구 기자회견(전남도청)



제4회  
**환경실천  
수기공모전**

**2018. 09. 20 ~ 10. 31**

전남 서남권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관심 계고와 지역의 생태,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직접 실천한 환경운동들 널리 알림으로서 또래 청소년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지를 고취하는 환경실천 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 제4회 환경실천수기 공모전

**경제성 무! 안전성 무! 환경성 무!**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결하라!**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1시 장소 : 고대여 대강당(101) 주소 : 전남목포시 남도읍 11-1

·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부결 촉구 기자회견

[회계보고] 8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주)세일산업/(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탁/우진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장동춘(박민아)/ 강구일/강대화  
 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순택/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선/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  
 김경미/김경완/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  
 김민국/김민근/김병욱/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선아/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시연/김삼욱/김애자/김연호/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  
 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욱/김완석/김용구/김용일/김용진/김용기/김윤임/김은미/김인수/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연/김진영  
 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용/김현곤/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노애란  
 류미현/마흥식/오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서근  
 박성원/박성현/박성희/박순미/박영운/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  
 박창수/박창우/박천용/박최균/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화진/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수정/백재봉/서병권/서연순/서정만  
 서한배/설지연/성상훈/소복레/손철주/송두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수/양현주/양효식/염미순  
 염송주/오경섭/오미선/오미선/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중/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  
 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상환/이수/이승용/이승환  
 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중훈/이준희/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주  
 이현진/이형광/이화정/임성숙/임성진/임진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재연/장진실/전경란/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  
 정고운/정권용/정귀정/정규규/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희/정인숙/정일승/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  
 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원기/조혜향/진선우/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비호/최선/최송춘/최영섭/최영운  
 최예화/최완수/최은기/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영/최희철/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한철준  
 허진홍/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8월 결산보고 (8월 1일 ~ 31일) |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4,463,000	사 업 비	교육사업	302,500
	단체회비	290,000		조사연구	
소 계	4,753,000	홍 보 비		3,657,000	
행사수입		행 사 비			
후 원 금	1,540,000	연대사업		323,370	
기타수익	4,193,705	소 계	4,282,870		
이자수익			회 의 비	총 회 비	
				위원회비	151,800
			소 계	151,800	
			인 건 비	급 여	3,300,000
				복리후생비	524,660
				퇴직적립금	275,000
			소 계	4,099,660	
			업무추진비	출 장 비	278,340
				활 동 비	80,000
			소 계	358,34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수 선 비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284,380
			소모품비	90,340	
			소 계	892,72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6,470	
			지급 수수료	84,300	
당월수입금	10,486,705	당월지출금	9,976,160		
전월이월금	1,586,043	통장 잔액	2,096,588		
합 계	12,072,748	합 계	12,072,748		

- 녹색연구회 1,000,000  
 - 디자인그라다 250,000  
 - 수익사업 준비금(12월 예정) 4,007,705



[회계보고] 9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주)세일산업/(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희/우진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장동춘(박민아)/ 강구일/강대화/ 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영규/강재석/강창원/강철수/강혜선/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김경미/ 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 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욱/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선아/김성룡/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 김영준/김영현/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웅기/김윤임/김은미/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연/김진영/김창식/김창훈/ 김탁/김태웅/김현곤/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노애란/류미현/마흥식/모원중/ 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 박성희/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 박철수/박최균/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배동희/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수정/백재봉/서병관/서연순/서정만/서한배/ 설지연/성상훈/소복례/손철주/송두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수/양현주/양효식/염미순/ 염송주/오경섭/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중/오현주/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 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복섭/이상엽/이상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용철/이우주/ 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숙/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 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진욱/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 전주수/정거배/정고은/정권울/정귀정/정수민/정수정/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희/정인숙/정일승/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 조동기/조미정/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원기/조은일/조혜향/조호빈/진선우/차용만/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명식/ 최비호/최선/최송춘/최승희/최영선/최영운/최예하/최완수/최은기/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자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영/최환석/ 최휘철/하영성/한봉철/한규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현인숙/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9월 결산보고 (9월 1일 ~ 30일)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4,157,000	사 업 비	교육사업	54,000
회 비	단체회비	310,000		조사연구	
소 계		4,467,000		홍 보 비	200,000
행사수입				행 사 비	
후 원 금		200,000		연대사업	324,000
기타수익		320,000	소 계		578,000
이자수익			회 의 비	총 회 비	
				위원회비	20000
			소 계		20,000
			인 건 비	급 여	4,455,000
				복리후생비	524,540
				퇴직적립금	275,000
			소 계		5,254,540
			업무추진비	출 장 비	650,400
				활 동 비	
			소 계		650,4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수 선 비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294,120
			소모품비	75,000	
			소 계		387,12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지급 수수료		78,720
당월수입금		4,987,000	당월지출금		7,068,780
전월이월금		2,096,588	통장 잔액		14,808
합 계		7,083,588	합 계		7,083,588

- 소식지 회원 광고수입 150,000



###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이노우에 토시히코 (지은이), 유명초 (옮긴이) | 사계절 | 2004-03-23

〈닛케이 ECO 21〉이라는 환경잡지에 2년 동안 연재된 글을 모았다. 취재 기사를 모은 글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은 단위에서의 실천까지 자세하다.

제1장 '되살아난 공해도시'에서는 미국의 채터누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일본의 미나마타와 같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았던 공해도시들이 어떻게 환경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다룬다. 제2장에서는 곱스따리까의 숲, 라인 강, 생태테마공원 CAT 등 파괴되었던 자연을 회복하고 환경도시로 발돋움한 곳들을, 제3장에서는 브라질의 꾸리찌바, 스웨덴의 예테보리 등 철저한 도시계획을 통해 환경도시로 위상을 높인 곳을 소개한다.

### 10월 16일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은 화학조미료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그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국제소비자기구(IOCUI)에서 1986년 제정한 날입니다. 자극적인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먹거리로 인해 입맛이 변해가고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화학조미료의 사용 및 섭취를 제한하고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의미로 제정됐습니다.



### 10월 18일 산의 날

산은 날은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유래했습니다. 10월 중의 하루를 산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선조들이 1년중 산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10월에 높은 곳에 올라 풍류를 즐기던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 등고(登高 음력9월9일)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 소나무를 베면 곤장이 100대?

2018년은 세종대왕이 즉위한지 6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과 소통하고,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일에 과학 기술을 동원했으며, 모든 통치 성과물을 책으로 남기고 인문학을 꽃피우는 등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이런 세종대왕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업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효시가 세종대왕이 만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종 6년인 1424년 송금사목(松禁事目)의 제정. 1619년(숙종 11년) 변산금송절목(邊山禁松節目)의 시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송금사목의 내용을 보면 '소나무를 베는 자는 곤장 1백대를 때리고, 만약 조정 관리이면 파직 시키고, 평민이면 곤장 80대에 다른 재물이나 노역을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고 하니, 조선시대 국가정책에서 나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 자연보호의 시작, 산림녹화 사업

하지만 선조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리의 산림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어요. 통행이 힘들고 벌목한 나무를 반출하기 불가능한 산간벽지에만 겨우 숲이 있을 정도였죠. 과거에는 겨울철 난방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식민지 시대 일본이 우리의 산림자원을 수탈하여 경술국치 당시 7억㎡에 이르던 숲이 광복 이후 약 2억㎡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숲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진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산의 50% 이상이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으며 풀 한포기조차 참기 힘든 사막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6.25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림 피해와 전쟁 복구로 인한 벌채, 연료용 나무의 벌채 등으로 우리나라의 숲은 병들어 갔어요.

이에 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산림녹화를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였습니다. 황폐해진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식물을 심는 사방사업을 실시했으며, 화전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았고 황폐화된 숲은 점점 풍성해졌어요.

산림녹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은 또 다른 그림자를 갖고 있었어요. 맑고 깨끗하던 자연이 차츰 오염되고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쳐 쓰레기 줍기 운동, 쓰레기 안 버리기운동,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환경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환경을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상생을 넘어 균형 발전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고조선에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역사~!

지금은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옛날처럼 곤장 100대를 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연을 숭상하고 아꼈던 옛 조상들의 정신을 본받아야겠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아요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회원 소식

8~9월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최송춘 추천 : 박유정, 조은일, 강석원, 장이현, 이지우, 신현령
  - 이현승 추천 : 정연우, 채희준, 조호빈, 이승환, 김진형, 김가영
  - 제갈경희 추천 : 현인숙, 최환석, 이형완, (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
  - 박종선 추천 : 최정훈, 홍갑석, 김공경
  - 김경완 추천 : 박수현, 박대성, 배영식
  - 고윤혁 추천 : 차용만, 전상보
  - 박성원 추천 : 박기남, 윤선미
  - 조상현 추천 : 송영미, 조성은
  - 조옥현 추천 : 유지원, 봉형구
  - 조원기 추천 : 박철수, 서석철
  - 김태웅 추천 : 김민지, 송영준
  - 최선국 추천 : 김진희, 최은녕
  - 임경숙 추천 : (유)일우산업, 장지은, 임은아, 정기심
  - 박갑수 추천 : 정수정
  - 박 현 추천 : 정동욱
  - 김민국 추천 : 최명식
- 재능기부 : 김창훈 회원 (온라인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 작업)



##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 은 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 세무사 하영성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하 영 성  
 목포시 백년대로 183  
 전화 : 061-284-3335, 3314  
 팩스 : 061-284-3372  
 모바일 : 010-8143-5880

## 플러스 정보통신

대표 김 영 호 010-6312-6987

목포시 영산로 345-1  
 (MBC맞은편 빠리바게트 옆)  
 대표전화 : 061-273-9800

산정점

## BAKERY WITH

베이커리위드

김 태 응

목포시 청호로 136번길 17(산정동)  
 T. 061-274-3578 / 010-9548-3578

## 이마트여행사

대표 조 영 인

# 1588-3925

목포시 옥암로 150 이마트 1층  
 모바일 : 010-5871-0515